# 나눔의집 제보자, 할머니 의료카드 유용 논란

## 내부제보직원들, 횡령 등으로 잇단 고소

**유가족들, 횡령 · 배임 의혹 제기**
**제보직원들 '후원금 유용' 논란도**
**절차없이 후원금 임의사용 정황**
**국가권익위 보호조치 취소 청구**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나눔의집 운영부실 문제를 지적해 온 내부제보 직원들이 최근 횡령 · 배임 등 의혹으로 잇따라 고소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나눔의집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내부제보 직원 중 한명인 간호조무사 A씨가 최근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개인에게 연 1000만원 가량 지급되는 의료급여카드의 존재를 숨긴 채 수년간 무단사용해 온 의혹으로 고소돼 충격을 전한데 이어 다른 직원 B씨도 사인 및 문서 위조로 전 시설장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내부제보 직원 7명이 그동안 후원금 및 법인 전입금 카드를 보고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해 온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나눔의집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나눔의집 운영 정상화추진위원회(회장 양한석, 이하 추진위)'는 9월 15일 광주 나눔의집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공개했다. 추진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진정한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법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내부제보 직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조치도 함께 예고했다.

이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사안은 간호조무사 A씨의 의료복지카드 관련 횡령 · 배임 의혹이다.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 대표 양한석(故 김순덕 할머니 아들)씨에 따르면 A씨는 나눔의집에 입소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 의료급여카드를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관 · 관리해 왔다. 해당 카드는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해 온 혜택으로, 올해 기준 1인당 1000만원 상당을 비급여 의료항목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수년간 의료급여카드의 존재를 할머니와 유가족 등에게 숨겼을 뿐 아니라,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상급자에게도 카드와 관련한 일체의 보고 없이 영양제 등 의약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이를 유용해 왔다는 주장이다.

故이용녀 할머니의 아들 서병화 씨 등 유가족들은 "나눔의집에 거주하다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유가족은 물론 현재 거주중인 할머니의 가족도 해당 카드의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됐다"며 "A씨가 유가족이나 자원봉사자 등에 고가의 영양제 등 보조식품과 의약품을 자주 선물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할머니들의 카드로 생색을 내 왔다는 점에서 배신감을 느낀다. 심지어 일부 가족의 경우 카드를 존재를 몰라 비급여 치료비를 부담한 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우용호 소장 역시 "6월 소장으로 부임한 뒤 유가족들의 얘기를 듣고 뒤늦게 의료급여카드에 대해 알게 됐지만, 그동안 사용 내역이나 건강 기록 등 관련 서류도 일체 없었고 전 소장과 사무국장 역시 알지 못했다"며 "할머니 개인에게 지원되는 카드라도 시설 입소어르신의 경우 개인이 지참한 상태로 사용하거나 시설이 관리를 위임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씨의 경우 당사자와 가족도 모르고 시설 상급자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카드를 무단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눔의집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나눔의집 운영 정상화추진위'는 9월 15일 내부 제보 직원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A씨측은 "해당 카드는 시설 서랍에 보관했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해 향후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A씨측은 변호인을 통해 "해당 의료급여카드는 할머니들의 의료용품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돼 있으며 물품을 산 영수증은 모두 보관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서 통해 일정기간 카드 사용내역을 입수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화추진위는 이날 A씨를 포함한 내부제보 직원 7명에 대한 고발 계획도 추가로 밝혔다. "내부제보 직원들이 법인 후원금을 절차 없이 개인 식사 및 음료 구입 등 사적으로 유용해 왔다"는 주장이다. 추진위는 "관련 통장 사용내역에 따르면 내부제보 직원들은 2019년과 2020년 법인 전입금과 지정후원금 등에서 4510만원 상당의 금액을 절차 없이 식대 등으로 임의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사용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거액의 후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내부제보 직원 B가 전 시설장의 사인을 위조해 점심식대 지원과 관련한 내부문서를 남긴 의혹도 제기됐다. 당사자인 전 시설장은 "3월 근무 당시 B씨가 제출했다는 점심 식사비용 지원요청에 대한 내부보고서를 본 적도 없으며 친필 싸인을 한 적도 없다"며 "B씨에 대한 고소장과 함께 친필사인 대조를 위한 문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내부제보 직원 C씨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추진위에 따르면 C씨는 법인 직원임에도 임의로 시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광주시 감사 지적사항에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새롭게 채용된 법인 과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논란을 빚고 있다.

조영군 사무국장은 "광주시와 경기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정조치를 하려고 해도 일부 내부제보 직원들의 임의행동으로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권익위원회가 이들을 공익제보자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며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도 노동청에 신고해 구제받고자 했지만, 대표가 아닌 직원이 임금 지급 지시를 불이행한 상황이라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나눔의집에서 일어난 일련의 상황과 관련, "나눔의집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던 내부제보 직원들이 되레 나눔의집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나눔의집 운영진은 최근 국가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내부제보 직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의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 사태가 5개월간 해결기미 없이 답보상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 법적 공방이 향후 정상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동국대 '제1회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 연다

**10월 10일 동국대 팔정도광장서 개최**
**9월 유튜브로 콘텐츠 사전제공**
**시민 '코로나 블루' 극복 취지**
**"온 · 오프라인 융합한 새 형태"**

동국대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과 이 시대에 헌신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명상 콘텐츠를 온 ·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1회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동국대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명상, 서울 ON'을 주제로 9월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온라인 명상을 제공하는 한편, 오는 10월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온 · 오프라인을 융합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9월 9일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상을 위한 강연과 함께 체험 명상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명상강의'에서는 수불 스님(안국선원 선원장)이 '코로나 시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화두명상'을 주제로 한 강의를, 서광 스님(동국대 교수)이 '코로나 시대, 무기력한 몸을 깨우는 영상'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이 '코로나 시대, 한국인들의 명상'을, 재마 스님이 '기분이 좋아지고 싶을 때'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아울러 '일상체험'으로는 혜주 스님이 연출에 참여하고 동국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걷기명상', 음악명상 연구소장인 이정은 씨의 '음악명상' 등 다양한 형태의 명상법을 유튜브로 제공한다.

특히 오는 10월 10일 오후 서울 동국대 팔정도(중앙광장)에서 본 무대인 '명상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1부에서는 하버드 의대 심리전문가인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달라이라마 존자의 축하공문, 쉐오민 센터의 우 떼자니야 사야도의 친필 축하 메시지 등이 동영상으로 연출되면서, '코로나 시대의 우리들'을 주제로 한 명상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토크 콘서트에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명상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고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연사들과 이웃 종교 성직자들도 함께 참여해 명상강의와 시연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어 2부에서는 '코로나 블루를 가라앉히는 따뜻한 선율의 시간'을 주제로 김나래 해금 연주자가 '선과 국악의 선율'을 주제로 한 연주와 명상노래를, 담소네공방이 '힐링음악'을, 동국대 김정민 교수(문화예술대학교)가 졸업생들과 함께 결성한 연주팀 소리공감의 위로 공연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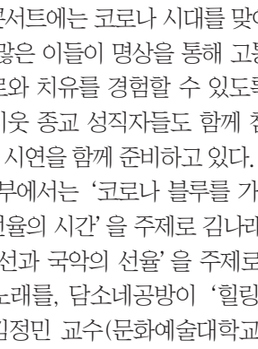
이번 행사를 기획한 동국대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 추진위원장 종호 스님(기획부총장)은 "비대면 온라인 영상에 역점을 뒀다"며 "온 · 오프라인을 융합한 온택트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 명상 서울 ON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2020 명상, 서울 ON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관람 또는 ZOOM을 통한 직접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mind.dongguk.edu)에서 확인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제23대 청불회장에 최재성 정무수석 선출

**운영위 회의서…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이 청와대 불자회(이하 청불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청불회는 "운영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제23대 청불회장으로 최재성 정무수석을 선출했다"고 9월 9일 밝혔다.

최재성 신임회장은 1965년 출생으로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양주시갑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지난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 첫 국회의원으로 불교계에 신망이 두텁다.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 열린우리당 대변인,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 올해 8월 문재인 정부의 4번째 정무수석으로 발탁돼 청와대와 국회, 여야 정당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신임 청불회장 취임법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후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